



The Asia Foundation



## 헨리루스재단의 LUCE 장학 프로그램 및 아시아재단의 역할

미국 뉴욕에 소재한 헨리루스재단(The Henry Luce Foundation)은 1974년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개선하기 위해 루스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29세 이하의 젊은 미국인들에게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의 전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40여 년이 지난 현재 아시아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헨리루스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은 미국 전역에 지정된 75개 대학 교육 기관으로부터 장학 후보생을 지명 받아 각 분야에서 저명하고 아시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최종적으로 18명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헨리루스재단과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은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1974년 루스재단의 본 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이를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루스 장학 프로그램에서 루스재단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을 부담하고, 아시아재단은 60년이 넘는 아시아 지역 프로그램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들 장학생의 적절한 배치 및 그들의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루스 장학생들은 매년 6월 말에 아시아 국가로 각각 파견되어 언어 교육을 받은 후, 9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연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연수 기관 선정은 전적으로 장학생 자신들의 전공 및 전문성과 이들을 수용하는 국내 기관과의 합의 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재단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워싱턴 연락사무소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18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1954년 창립 이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 상호이해 및 협조를 증진시켜 온 아시아재단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노력에 의한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 강화, 효과적 법률제도의 발전, 시장경제 육성, 정부 및 민간분야의 책무 강조, 언론의 독립과 책임 배양, 시민사회 발전, 공공분야의 시민참여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아재단은 1954년 한국에 지부를 개설하고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 활동을 펼쳤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여러 기관들과 공동으로 한미간 상호 이해, 여성의 역량 강화, 북한의 경제적 개방, 차세대 지도자 양성, 한국과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확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